

208장 - 내 주의 나라와

2023년 9월 27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08장 다 함 께
 기 도 정호성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19:1, 18~19, 22 인 도 자
 찬 양 주의 크신 은혜 새 벽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의 개입하심』 엄재광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19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19장 - 찬송하는 소리 있어

- (1)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 (2)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 (3)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 오늘의 말씀 < 이사야 19:1, 18~19, 22 >

-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 18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 19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 참고구절

-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렘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 담당

| | | | | | |
|----------|----------|---------|---------|---------|----------|
| 9/26(화) | 9/27(수) | 9/28(목) | 9/29(금) | 9/30(토) | 10/2(월) |
| 김춘식 안수집사 | 정호성 안수집사 | | 추석 명절 | | 조병현 안수집사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3년 9월 27일(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알리는 비 소식에 세월의 빠름을 생각하며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조용한 감찰 이후에 그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세상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을 공활히 여겨 주옵시고, 만유의 주요 만군의 왕으로 좌정하사 주님의 공의를 펼쳐주옵소서.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저희의 삶에도 빠른 구름을 타고 왕으로 임재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동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만나는 모임마다 사랑의 나눔과 화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사, 화목함의 중심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계선을 넘어 세상으로'라는 표어아래 의료선교팀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의료선교팀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동역하는 교역자와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